

어촌관광 발전방안

우리나라의 어촌은 자연생태, 역사문화, 산업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여름에 집중하여 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자원의 활용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이 아직은 해변휴식, 해수욕, 해산물 시식 위주의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교통 및 접근성이 불량하며 민박, 주차장, 화장실,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요망된다.

김성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관광연구실장
홍장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관광연구실 연구원

어촌의 여건 변화와 어촌관광의 필요성

과거 우리나라의 어촌은 수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 타결된 한·중,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장은 대폭 축소되었고 연안오염과 간척매립 등으로 자원도 고갈되어 어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산물 유입이 급증하여 이에 대비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요구

된다. 고부가가치화 방안으로는 수산물의 생산 후의 처리 과정에서 가공이나 유통단계, 저장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지역어업 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WTO 등에서 직접 보조를 규제하려고 하므로 간접적인 지원 수단인 어촌의 관광 인프라 등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어촌관광 기반정비에 대한 보조 전환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더불어

어촌관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먼저 어민 소득 측면과 도시민의 레저공간 다양화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들 수 있다.

어가와 도시근로자 및 농가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데, 2000년에는 농가의 81.8%, 도시근로자의 66.1%에 불과할 정도로 어가소득의 상대적 저위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어촌관광 등을 통한 새로운 대체 소득원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표-1〉 어가소득의 상대적 비교

(단위 : 천원, %)

연 도	소 득 금 액(천원)			비 율(%)	
	어가(가)	농가(나)	도시근로자(다)	가/나	가/다
1988	6,821	8,130	7,886	83.9	86.5
1998	16,794	20,494	25,357	81.9	65.6
2000	18,875	23,072	28,643	81.8	66.1
평균증가율 (%)	8.9	9.1	11.3	-	-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2000.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2001.

주 : 도시근로자 소득은 자가 평가액 제외

어촌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어촌에서는 소득 증대로 인한 취업기회 확대로 젊은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인력의 균형공급, 지역균형 발전, 어촌의 정주권의 유지 등 어촌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얻게 된다.

기타 어촌관광의 필요성으로서 어촌의 미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고, 연안, 도서 등 한계지역의 활용, 그리고 주말과 여름 휴가철 등 피크 시즌에 관광객을 어촌지역으로 분산시켜 교통과 각종 시설 이용 체증을 줄이고 다양한 관광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등 관광 테마의 다양화와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화가 이룩되게 된다.

관광은 과거에 비해 활동형태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근로시간의 점진적 감소, 휴가제도의 정착, 격주근무 제도의 시행, 자가용 시대의 도래 등으로 다양한 관광과 여가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는 관광에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관광의 행태로 변화하였으며 아울러 관광 패턴이 기존의 내륙지향에서 해양지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연안교통망의 발달로 관광활

동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2001년 말 개통되어 낙후하였던 서해안 지역의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울진, 무안 등의 연안지역 공항들도 계획이 되어 있어 어촌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가처분소득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1988년 이후 연평균 5.63%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실시 예정으로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관광지 위주에서 탈피하여 농어촌 등으로 관광객이 확산되어 낙후된 농어촌지역 개발로 지역균형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해양·어촌지역 관광 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이용 방안 도출이 요망된다.

〈표-2〉 국민가처분 소득 및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

연 도	구 분	국민가처분소득 (10억원, 1995 불변가격기준)	주당 평균근로시간
1988		205,072.6	51.1
1998		341,272.5	45.9
1999		374,457.1	-
연평균증가율(% , 88~99)		5.63	-1.07

자료 : 통계청(www.nso.go.kr)

어촌관광의 개념 및 자원

환경 친화적 농촌관광인 녹색관광과 더불어 블루 투어리즘인 어촌관광의 경우도 농어가에서 겸업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농어촌의 생활, 문화, 자연자원을 포함한 각종 자원을 도시와 농어촌 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촌관광과 녹색관광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광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서 전형적인 농어촌이 중심으로 손을 대지 않은 자연을 그

대로 느끼고 보고 체류하면서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된다. 둘째, 서비스의 주체가 농어가 등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써 대규모의 외부자본으로 설치된 레저시설이 중심이 아니라 방문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다. 셋째, 도시주민과 농어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하여 농어촌의 생활·문화자원 등 각종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민박, 레스토랑, 캠프장, 농수산물 판매소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어촌에서는 현재 낚시어선 3,67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바다낚시가 가능한 갯바위, 넓은 갯

벌, 기암괴석·해안절벽, 해수욕장, 다도해적인 경관, 해저다이빙 공간 등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어촌관광의 특성과 발전단계

어촌관광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먼저 어민이 수행주체로서 본업인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므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식 등 여러 가지 강점도 있는 반면에 전문 관광사업가들이 갖는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데서 오는 한계들도 있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민들이 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므로 사업형태가 소규모, 소자본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로서 지역 여건을 잘 이용하여 적절히 운영이 될 경우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 연안의 어촌의 실태를 고려하여 어촌에서의 관광 발전 단계를 나누어 보면 먼저 수산업과 농업 등을 겸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순수수산업 어촌에서 출발하여 소득의 증가

〈표-3〉 어촌의 자원잠재력

(단위 : 척, %)

종 목	보 유 현 황	비 고
낚시어선	3,672척	2001 10월현재
바다낚시가 가능한 갯바위	73.9%	전체어촌 대비
넓은 갯벌	47.7%(45.0%)	"
기암괴석·해안절벽	46.6%(33.7%)	"
해수욕장	42.0%(49.1%)	"
다도해적인 경관	33.0%	"
해저다이빙 공간	27.3%	"
철새 서식지	(25.4%)	"
방풍림	(26.0%)	"
바다 갈라짐	(11.8%)	"
하천·하구언	(14.8%)	"
동굴	(13.0%)	"
수목 및 화초	(18.3%)	"

* 자료 : 황기형·이승우,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00 12. 및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1996 10. ()안은 농림부의 연구 결과임.

〈표-4〉 어촌의 관광지 발전단계

모 델	어 촌 계	방 향
순수 수산어촌 관광어촌 순수 관광지	대부분 어촌계 일부 어촌계 제한된 지역	수산시설 보강 및 어촌관광화 대비 지원 어촌관광사업 집중지원 관광사업 인프라 보강 방안, 기타 민자

* 자료 : 필자 작성

와 도로의 개설, 자가용의 보급 등으로 도시민들의 왕래가 차츰 잦아지게 되어 어촌은 점진적으로 관광어촌화 하게 된다. 관광어촌으로 변하면서 이때에는 어촌 산업이나 어촌의 자원과 관련되는 관광시설이 생겨나게 된다. 일부 지역은 관광지 지정 등을 통하여 완전히 관광지로 변하여 원래의 어촌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지역 전체가 관광업이나 유통업으로 변화한 지역들로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두번째로 언급된 관광어촌을 다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의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 부문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1단계(기초 관광어촌마을)로서 기존의 순수어촌에서 관광 발전가능성은 높으나 아직은 관광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마을로서 기초 관광인프라가 약하므로 이의 구성에 주력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광어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단계(성장 관광어촌마을)로는 기초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상당한 관광객을 집객하고 있으며 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경우로서 인프라의 보완과 홍보, 관광프로그램 등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역만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숫자가 많지 않다.

3단계(성숙 관광어촌마을)는 관광어촌으로서 완벽한 체험, 휴식, 숙박 등의 시설을 갖춘 마을로서 각종 관광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관광사업이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고도화된 지역이다. 이러한 마을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선진적인 관광어촌이라고 볼 수 있다. 정동진, 제부도 등 일부 유명한 어촌관광지가 있으나 이미 어업적 기반이 상실된 경우가 많아 참다운 의미로서의 어촌관광마을이라고

보기 어렵다.

향후 어촌관광마을의 효과적인 구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향후 정부에서는 기반없는 기초 관광어촌마을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기반 구성에 힘써 어촌이 관광마을로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성장권에 진입한 어촌관광마을에 대하여는 보다 성장의 잠재력을 키워주 특히 시설의 보강 이외에도 서비스의 보강과 지역특화상품 등의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여 중국에는 성숙형의 관광마을로 진입하여 수산업과 관광업이 고도로 연계된 타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촌계를 수협 중앙회에서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복지형, 자립형, 성장형으로 구분되고 있는 바 특히 소득이 열악하나 관광잠재력이 높은 자립형, 성장형 어촌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요망된다. 또한 도시근교형, 연안어촌형, 도서형 등의 지리적 유형이 있는데

〈표-5〉 우리나라 분류유형별 어촌계별 현황(2000)

어촌계	발전수준			입지유형			계
	복지형	자립형	성장형	도시근교형	연안어촌형	도서형 (취약지구)	
개소수	545	994	270	340	1,203	266	1,809

* 자료: 어촌계현황, 수협, 2000 12. 31.

이 경우 먼저는 수요가 높은 도시근교형에 지원이 높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안어촌형 중에서는 관광지 인근이나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좋아 잘 알려진 곳들이 우선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 관광어촌마을의 경우는 어느 정도 관광 자립기반이 갖추어진 경우이므로 약간의 사업 지원으로 모범적인 성숙 관광어촌마을로 조성이 가능케 되므로 때로는 집중적 지원으로 시범 관광어촌마을을 조성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어촌관광 현황 조사 결과

2001년에 전국에 거주하는 12세 이상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은 해변휴식, 해수욕, 해산물 시식 위주의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민박과 자가용의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친구·친지의 동반 비율이 높고 구전과 인터넷에 의한 정보획득이 높은 편이다. 입지적으로 교통 및 접근성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장, 화장실,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관광활성화 방안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활동이 전개되는 마을 내부의 시스템과 마을을 둘러싼 외부의 협력이 요망된다. 외부시스템의 경우 중앙정부(해양수산부 등),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어촌마을의 협의회 혹은 추진위원회, 수협지부, 그리고 지역의 대학 등 전문기관 등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아 중앙정부는 개발을 선

〈표-6〉 어촌관광의 개발분담체계

주체	역할
해양수산부	· 기본개념 제공, 개발방향 선도 ·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교육지원
지자체	· 실무적인 지원 및 지도, 기초기반시설 지원 · 교육, 자문 등 독려
마을추진위원회	· 인원 교육, 조직화 · 자금 조달 및 집행, 외부 지원 및 자문 요청
수협	· 자금 지원, 어촌계 등 조직화, 경영 지도
외부기관(대학, 전문협회)	· 자문, 공동연구, 전문 서비스 제공

도하고 지자체, 수협, 외부기관 등은 개발을 측면 지원하고 마을의 추진위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이 되는 bottom-up 방식이 요망된다.

마을의 내부적 시스템으로서는 전체 어촌계의 주민들을 체험교육 도우미, 해설가, 서비스 요원으로 구분하여 어촌관광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체험교육 도우미는 바다낚시, 유어장, 해양스포츠 체험, 어촌체험 등 해당 사업에 종사자로 구성하여 어촌마을 체험자들이 들어오면 책임지고 교육하되 순번을 정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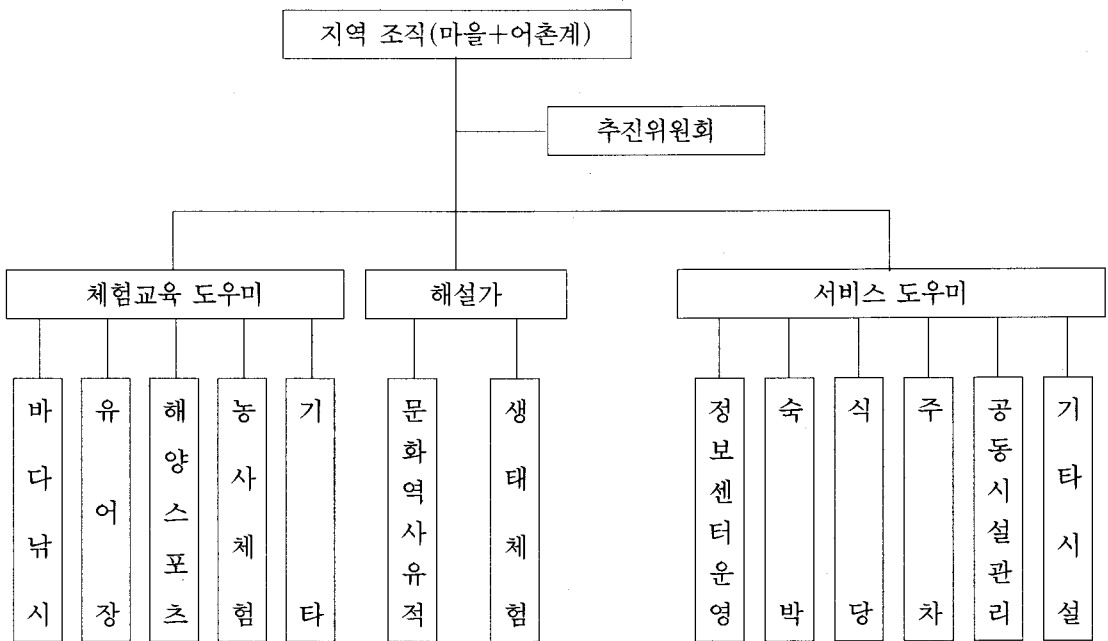
지정된 체험장에서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도록 한다.

해설가는 문화유적과 주변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고 이를 각색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서비스 도우미는 관광객을 접객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민박을 포함한 숙박업자, 식당업자 혹은 민박·식사 제공자 등이 주된 요원이며 이와 함께 관광정보센터, 주차장, 화장실 등 공동시설과 기타시설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데 일반 어업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은 국립수산물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게 될 어업인 관광교육 및 어촌관광가이드 교육을 활용한다. 아울러 숙박업자, 식당업자는 시·군이나 도 단위의 협회에서 실시하는 단체교육 등을 통하여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유도한다.

관광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광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가이드 등 핵심 요원들은 정기적으로 지역의 관광관련 학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 등의 단기 교육코스를 이수시키되 생업에 종사하여 이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들



〈그림-1〉 어촌관광마을 추진조직 구조도

은 부정기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현지에서 받도록 한다.

핵심요원 이외의 젊은 리더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마인드,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어 미래 지향적 요원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숙박, 식당, 역사가이드 등 부문별로 해당 전문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위하여 지역의 대학교 관광학과와 자매 결연을 맺어 주기적으로 관광서비스의 품질진단을 받도록 하며 이를 통해서 어촌계는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학교는 이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산학 연구협동 체제를 차체에 구축토록 한다. 이와 관련된 대학들의 평생교육원이나 직업교육원 등의 시설을 주민교육에 활용한다.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서 국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광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어촌에서는 ① 각종 시설 개선, ②接客 능력 개선, ③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④ 어촌관광정보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는 인터넷

등 첨단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관광업계로서는 평소 새로운 관광테마의 발굴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새로운 관광요소로서 어촌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업계에서도 어촌과 정보 연계망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난개발로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가 높은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어촌의 환경 보전과 전통·문화도 커다란 자산으로서 이의 유지가 요망된다. 또한 테마의 다양성 부족을 들 수 있으며 대부분 현재의 관광 테마가 회 등 먹거리 위주이며 일부 어촌에서 생태, 경관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일본은 80년대부터 어항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 유선장, 잠수공원, 공원지구, 아름다운 마을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어항 중 관광 중심의 어항이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의 어촌은 자연생태, 역사문화, 산업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여름에 집중하여 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자원의 활용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이 아직은 해변휴식, 해수욕, 해산물 시식 위주의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교통 및 접근성이 불량하며 민박, 주차장, 화장실,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요망된다.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주체의 역할분담, 조직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반확충 사업 실시와 어민의 관광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망된다.㉠